

낙소스의 간판 피아니스트 - 예뇌 안도

건반에서 가장 바쁜 사람

영국의 데일리 텔레그래프가 '건반에서 가장 바쁜 사람'이란 말을 하기도 했지만, 예뇌 안도는 낙소스 초창기부터 어마어마한 양의 녹음을 내놓았던 피아니스트다. 물론 그가 그렇게 근면한 피아니스트로 인식된 데는 지금까지도 한 달에 수 십 가지 음반을 내놓는 피력을 발휘하고 있는 낙소스의 왕성한 의욕 덕분이기도 하다. 언뜻 생각나는 것만으로도 안도는 모차르트의 피아노 소나타 전집과 피아노 협주곡 전집을 완성했고, 하이든 피아노 소나타 전집, 베토벤 소나타 전집, 슈베르트 피아노 소나타 전집, 바흐의 평균율 클라비어 1,2권, 전 3권으로 된 리스트의 순례의 해, 브람스 피아노 협주곡 두 곡, 바르토크의 피아노 협주곡 전곡까지 일찌감치 녹음해놓았다. 만약 그가 메이저 레이블에서 이렇게 많은 작업을 했다면 그는 아마 지금보다 훨씬 더 '엄청난 피

아니스트'로 주목 받았을 것이다. 물론 단기간에 많은 작업을 하다보니 개중에는 경쟁 음반들에 비해 인기가 조금 떨어지는 아이템도 만들었던 것이 사실이다. 아무리 뛰어난 피아니스트라고 해도 자신의 모든 음반을 최고의 수준으로 만들기는 어려운 것이기에 그것은 충분히 이해할 만하다.

헝가리의 탁월한 피아니스트

안도는 남부 헝가리의 조용한 도시인 페츠(Pecs)에서 태어났다. 처음에는 어머니한테 피아노를 배웠고 이후 리스트 음악원에 진학해 카탈린 네메스(Katalin Nemes)와 파울 카도사(Paul Kadosa) 선생 밑에서 정규 피아노 교육을 받았다. 음악원을 졸업한 후 안도는 치프라 콩쿠르를 포함, 주요한 피아노 콩쿠르에 나가 입상의 소식을 전하기 시작했다. 안도는 자신이 처음으로 직업 피아니스트로서 본격적인 활동을 하게 된 계기나 시점이 그가 18세 되던 해 베토벤 피아노 콩쿠르에서 3등상을 받았을 때였다고 말한다. 이후 그의 손가락은 점점 더 힘을 얻었다. 안도는 1973년에 드디어 헝가리 피아노 콩쿠르에서 우승했고, 1977년에는 시드니 국제 피아노 콩쿠르에서도 실내악 부문의 1등상을 차지했다.

지금은 낙소스의 간판 피아니스트로 이미지를 굳혔지만, 안도의 낙소스와의 인연은 정말 우연한 기회에 찾아왔다. 출범한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의 일이다. 우선 잘 알려진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들을 녹음해서 이제 막 시작한 레이블의 위상을 정립하고 싶었던 낙소스는 당연히 목직한 최고의 명곡과 그것을 뛰어난 솜씨로 연주해 줄 피아니스트를 찾는데 고심해야 했다. 이때 마침 낙소스와 일하던 헝가리 회사가 안도를 추천했고, 안도는 낙소스에 자신의 "데모" 테이프를 보내 인정을 받았다. 오늘날 너무나 유명한 그의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음반들은 이렇게 해서 나오게 된 아이템이었다. 베토벤의 음악은 당시 안도가 아주 즐겨 연주하던 레퍼토리였기 때문에 그는 메이저나 마이너나 기라성 같은 거장들의 명연들이 즐비한 그 분야에서 분명히 밝은 빛을 낼 수 있었다. 그의 연주 솜씨는 제 6권 정도에 돌입했을 때 절정

에 이르렀다.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들을 내면서 탄력을 얻은 안도는 전집 녹음 프로젝트와는 별도로 협주곡 레퍼토리 녹음 전선에도 뛰어 들었다.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 협주곡 2번과 파가니니 주제에 의한 광시곡, 그리고 그와 슈만, 그리고 브람스의 피아노 협주곡 등 유명 협주곡 레퍼토리들은 모두 그의 해석으로 다시 태어났는데, 애호가들은 안도의 협주곡 녹음들을 상당히 좋아했다. 안도는 아주 예민한 피아니스트에 속한다. 이미 많은 독주곡 음반들에서 느낄 수 있는 부분이지만, 많은 사람들은 특히 실내악에서 안도의 예민한 감수성을 자주 확인한다. 매우 대중적인 슈베르트 피아노 오중주 <송어>와 브람스와 슈만의 피아노 5중주의 걸작들은 나오자마자 단번에 까다로운 세계 비평가들의 귀를 매료시켰다. 잘 알려진 아이템이지만, 브람스와 슈만의 피아노 오중주는 항상 그 어떤 메이저의 음반들과도 당당히 겨뤘던 아이টে므로, 현재까지도 우리 애호가들 마음속에 이 두 곡의 가장 뛰어난 연주 중의 하나로 인식되어 있다. 세 명이 연주하는 삼중주에서도 안도는 발군의 실력을 발휘했는데, 베토벤의 피아노 삼중주곡 <대공>, <유령>은 염가로 만날 수 있는 것으로는 최고의 음반에 속한다. 안도는 오케스트라 혹은 실내악 협연자뿐만 아니라, 이중주의 반주자로서도 아주 듬직한 피아니스트다. 프랑크와 그리그의 바이올린 소나타에서 안도는 바이올리니스트 타카코 니시자키를 아주 안정적으로 반주함으로써 듀엣의 파트너로서도 입지를 공고히 했는데, 도호나니의 첼로 소나타, 코다이의 첼로 소나타에서도 그는 자신이 얼마나 매혹적인 이중주 파트너인가를 잘 확인시켜준다.

위대한 성취

이 세상 모든 레퍼토리들을 레이블에 담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낙소스. 그 회사의 엄청난 음반들을 대하는 태도는 가끔씩은 '많은 활을 썬서 과녁의 중간에 맞힌 것이 얼마나 되는가' 세어보는 것이 필요할 때가 있다. '는 생각과 함께 한다. 최근 유럽에 가본 사람이라면 낙소스 코너가 각 매장마다 따로 마련되어 음반들이 그득히 진열되어 있음을 보고 놀랄 것이다. 낙소스 음반이 세계 최고의 클래식 음반지 그라모폰이 매달 선정하는 좋은 음반 톱 텐에 자주 등장한다는 것은 이미 음악애호가들에게 잘 알려진 사실이다. 애호가들 사이에서는 하도 많이 만들어내니까 좋은 것들이 많을 수밖에 없다는

우스개 소리가 돌기도 한다. 좋다. 그런 말을 모두 받아들이며 안도의 많은 음반들을 놓고 다시 이런 말을 덧붙인다. 많은 활을 썬서 과녁의 중간에 맞힌 것들, 즉 성공한 음반들의 숫자만으로 평가해본다면 그가 이런 성취란 결코 간단히 봐 넘길 만한 것이 아니라고, 모두 열거하긴 어렵고 너무나 아름다운 안도의 음반들 몇 가지만 나열해 본다. 미흡하다면 오늘 저녁, 안도가 어떤 걸작들을 남겼는지 확인하는 재미에 빠져보는 것은 어떨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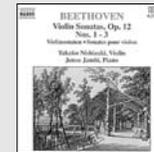
안도의 아름다운 명반들



Beethoven:
Piano Trios "Archduke", "Ghost"
Naxos 8.550442



Beethoven:
Bagatelles
Naxos 8.5504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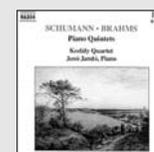
Beethoven:
Violin Sonatas, Op. 12, Nos. 103
Naxos 8.550284



Haydn:
Piano Sonatas, Vol. 1: Nos. 59-62
Naxos 8.550657



Bartok:
Piano Concertos Nos. 1-3
Naxos 8.550771



Schumann/Brahms:
Piano Quintet
Naxos 8.550406



엔니오 모리코네와의 작업을 기대한다

벨기에의 플루트 연주자 마르크 그로월스



마르크 그로월스는 벨기에 출신이며, 우리 시대의 가장 뛰어난 플루트 연주자 가운데 한사람이다. 음악공부를 마친 후 그로월스는 겨우 19살의 나이로 플라망 오페라와 함께 오케스트라 데뷔를 했다. 그는 제임스 골웨이나 장 피에르 랑팔 같은 자신의 악기의 대가들한테도 많이 배웠다. 1976년에 그로월스는 브뤼셀 모네에 극장(벨기에 국립 오페라) 오케스트라에 들어가 피콜로 연주자로 일하다가 약 2년 후인 1978년에 벨기에 방송 교향악단의 수석 플루트 연주자로 일했다. 그곳에서 약 10년간 단원으로 일한 후 1986년에는 카를로 마리아 줄리니가 지휘하는 유명한 오케스트라에 스카우트되었는데, 이때부터 그로월스의 경력은 화려하게 빛나기 시작했다. 벨기에서는 음악 교육자로도 유명하다.

브뤼셀 왕립 음악원에서 15년간 학생들을 가르쳤고 뫼스 왕립 음악원의 명예 교수로도 추대되었다.

그로월스는 친절하고 서글서글한 성격을 타고 났는데, 관용적인 성격만큼이나 음악에 대한 이해도 넓다. 그는 피아솔라를 연주하다가 모차르트를 연주하고, 바흐를 연주하다가 라비 상가를 연주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렇게 전혀 다른 음악들을 넘나들면서도 일단 연주에 몰입하면 한쪽의 세계는 깨끗이 잇는다. 즉 금방 라비 상가를 연주했다고 해도 바로 바흐에 몰입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는 놀라운 재능을 부드러운 성격으로 감싸면서 태어난 사람이다. 타고난 성격 때문에 인간관계도 좋아 많은 작곡가들이 특별히 그를 위해 작품을 써주기도 했다. 엔니오 모리코네로부터는 '유럽을 위한 노래(Cantate for Europe)'를 받았고, 아스토르 피아솔라한테는 '탱고의 이야기(History of the Tango)'를 받았다. 아주 최근에는 그리스 작곡가인 야니스 마르코풀로스가 플루트 협주곡을 써서 그에게 헌정했다. 앞으로 영화음악 작곡가로 우리나라에서도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는 엔니오 모리코네와 몇 가지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하는데 많은 기대를 하지 않을 수 없다.

낙소스에 있는 마르크 그로월스의 음반들

8.557782

마르크 그로월스 내한공연
*일시 : 2005년 9월 23일(금) 오후 8:00
*장소 : 금호아트홀
*프로그램 : 페르트: 거울속의 거울, 피아솔라: 탱고의 이야기
영: 자연에 보내는 송가, 상가-라가: 황홀한 아침
이번 공연의 프로그램은 낙소스 신보(8.557782)와 내용이 일치합니다

8.555877

Japanese Melodies

8.555918

DEVIENNE: Flute Concertos

8.555977

Flute Concertos (Romantic)

8.555954

French Flute Favourites

8.557111

JONGEN: Flute Sonata / Flute Trio / Danse lente / Elegie

8.555698

MENDELSSOHN: Flute Concerto in D Minor / Flute Sonatas

8.5559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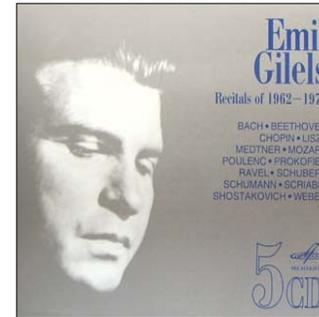
MOZART: Oboe Quartet, K. 370 / Oboe Quintet, K. 406a

러시아 클래식 음반의 대명사 멜로디야(Melodiya) 수입 본격 재개

러시아 클래식의 본가 멜로디야의 음반들을 꾸준히 라이선스 발매해왔던 아울로스 뮤직은 2005년 하반기부터 멜로디야 수입음반들을 본격적으로 국내시장에 배포하기로 결정했다. 한동안 수입되지 않아 애호가들이 갈증을 많이 느끼고 있었는데, 이제 국내 매장에서 쉽게 멜로디야의 전설적인 명반들을 만날 수 있게 되었다. 아래는 아울로스 뮤직에서 엄선해서 우선 1차로 들여오게 된 품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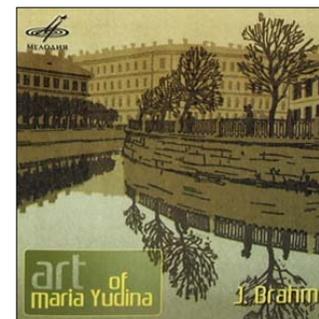
에밀 길렐스 리사이틀(1962-1970)

러시아의 위대한 피아니스트 에밀 길렐스가 1960년대 중반부터 70년대 초반까지 멜로디야에서 남긴 소중한 기록들을 한 자리에 모았다. 바흐에서 모차르트, 베토벤, 쇼팽을 거쳐 폴랑, 쇼스타코비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레퍼토리들을 통해 길렐스의 심원한 음악성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MEL CD 10 00792(5CD)

- CD1 Chopin: Piano Sonata No.1 / Poulenc: Concerto Champetre with Moscow Phil / Kirill Kondrashin
- CD2 Schubert: Moments musicaux / Shostakovich: Piano Sonata No.2 / Schumann: Arabeske / Chopin: Ballade No.1
- CD3 Bach/Busoni: Prelude & Fugue / Beethoven: Variation Wo0.80 / Weber: Piano Sonata No.2 / Liszt: Piano Sonata No.2 / Prokofiev: Visions Fugitives
- CD4 Beethoven: Piano Sonata No.8 'Pathetique' & 11 'Moonlight' / Schubert: Impromptu / Ravel: Pavane pour une infante defunte, Jeux d'eau / Medtner: Sonata reminisenza / Chopin: Etude in Ab minor & in F minor / Prokofiev: Scherzo & march from 'The love for three oranges'
- CD5 Mozart: Piano Sonata K281, 6 Variations K398, 10 Variations K455, Fantasia K397, Piano Sonata K310



MEL CD 10 00821

마리아 유디나가 연주하는 브람스

스탈린의 총애를 받았던 구소련 최고의 여류 피아니스트 유디나 니콜라예바와 더불어 구소련을 대표하던 여류 피아니스트였던 마리아 유디나. 아직은 소수 마니아들의 전유물과도 같은 이름이었지만, 이 음반의 등장과 함께 보다 많은 애호가들이 소문속에 감추어져있던 이 연주자의 심원한 실체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음반에는 그녀가 연주하는 브람스의 하이든 주제의 변주곡과 더불어 냉전시대 소련의 대표적인 현악연주자들인 드미트리 치가노프, 페오도르 드루진인, 세르게이 시린스키와 호흡을 맞춘 브람스의 피아노사중주 2번이 함께 수록되었다.

러시아의 전설적인 거장 므라빈스키. 그가 남긴 생생한 기록들.

이미 하나의 전설적인 이름이 되어버린 므라빈스키. 한동안 국내 매장에서 만나기 어려웠던 그의 생생한 기록들이 다시 우리 곁에 찾아왔다. 그의 이름 하나만으로도 강력한 신뢰감을 느끼게 만드는 쇼스타코비치의 교향곡 선집인 MEL CD 10 00770. 모차르트, 베토벤, 슈베르트, 바그너로 이어지는 정통 독일레퍼토리 중심의 MEL CD 10 00755. R. 슈트라우스, 글라주노프, 힌데미트, 오네거, 바르토크 등의 근현대 레퍼토리를 담은 MEL CD 10 00932. 브람스, 브루크너, 베토벤의 교향곡들 중심의 MEL CD 10 00800. 거장의 다양한 면모를 이들 에디션을 통해 나누어 만나볼 수 있을 것이다.



MEL CD 10 00770(6CDs)

므라빈스키 쇼스타코비치 교향곡집

- CD1 Symphony No.5 & Oratorio 'Song Of The Forests'
- CD2 Symphony No.7 'Leningrad'
- CD3 Symphony No.8
- CD4 Symphony No.6 & No.10
- CD5 Symphony No.11 'Year 1905' & No.12 'Year 1917'
- CD6 Symphony No.12 Year 1917 & No.15



MEL CD 10 00755(5CDs)

므라빈스키 에디션

- CD1 Mozart: Symphonies Nos.33 & 39, Concerto for flute, harp & orchestra
- CD2 Mussorgsky: Dawn on the Moskva-river
Rimsky-Korsakov: Tale of the Invisivle city of Kitezhe suite
Bizet: Three Entr' actes from Carmen
Debussy: Two Nocturnes (Nuages, Fetes), L'apre midi d'un faun
Ravel: Bolero
- CD3 Wagner: Die Meistersinger von Nurnber prelude act 1, Lohengrin prelude act 1&3
Tannauer Overture, Tristan und Isolde prelude & Liebestod, Gotterdammerung
Funeral march, Die Valkure Ride of the Valkiries
- CD4 Beethoven: Symphonies Nos. 4 & 5
- CD5 Schubert: Symphony No.8 'Unfinished'
Sibelius: Swan of Tuonela, Symphony No.7



MEL CD 10 00932(5CDs)

므라빈스키 에디션

- CD1 Symphony No.4 (Alexander Glazunov)
Symphony No.21 (Ovsyaniko-Kulikovsky)
- CD2 Highlights From Nutcracker (Peter Ilyich Tchaikovsky)
Highlights From Romeo & Juliet (Sergey Prokofiev)
- CD3 Eine Alpensymphonie (Richard Strauss)
- CD4 Symphony 'Harmonia Mundi' (Paul Hindemith)
Symphony No.3 'Liturgy' (Arthur Honegger)
- CD5 Music For Strings, Percussion & Celeste (Bela Bartok)
Prelude D'Apres Midi D'Un Faune (Claude Debussy)
Agon (Igor Stravinsk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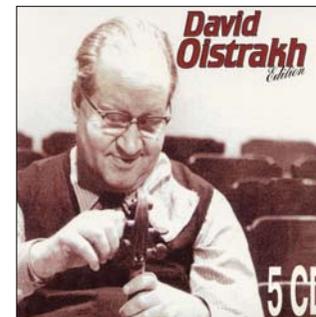
MEL CD 10 00800(5CDs)

므라빈스키 에디션

- CD1 Symphony No.4 (Ludwig Van Beethoven)
Symphony No.2 (Johannes Brahms)
- CD2 Symphonies Nos.3 & 4 (Johannes Brahms)
- CD3 Symphony No.8 (Anton Bruckner)
- CD4 Symphony No.9 (Anton Bruckner)
- CD5 Francesca Da Rimini (Peter Ilyich Tchaikovsky)
Italian Capriccio
Serenade For Strings

러시아가 낳은 최고의 바이올리니스트 다비드 오이스트라흐.

그의 위대한 예술세계를 여기에 집대성하였다. 우락부락한 외모와는 달리 오이스트라흐는 대단히 아름다운 음색을 만들어내는 바이올리니스트로 유명하며, 폭과 양감, 두께, 깊이를 동시에 표현해낼 수 있는 연주자이기도 하다. 그의 표현력은 천변만화의 뉘앙스라고 해야 할 정도로 풍부하다. 그래서 그의 바이올린에서는 감미롭고 로맨틱한 표정의 음악이 따뜻하게 흘러나온다. 차이코프스키, 브람스, 시벨리우스, 드보르작으로 이어지는 로맨틱 바이올린협주곡의 걸작들에서는 거장의 강력한 카리스마를, 프랑크와 브람스의 소나타에서는 탁월한 서정성과, 부드러운 호흡을, 비탈리의 샤콘느를 비롯한 애청소품들에서는 오이스트라흐의 따뜻한 미소를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MEL CD 10 00745(5CDs)

다비드 오이스트라흐 에디션

- CD1 Peter Ilyich Tchaikovsky : Violin Concerto
With Moscow Phil / Gennadi Rzhdestvensky
Jean Sibelius : Violin Concerto & 2 Humoresques
With USSR RTV Large Symphony / Gennadi Rzhdestvensky
- CD2 Johannes Brahms : Violin Concerto
With USSR RTV Large Symphony / Kirill Kondrashin
Antonin Dvorak : Violin Concerto
With Ussr State Symphony / Kirill Kondrashin
- CD3 Ciacona (Tomaso Antonio Vitali)
Melody From 'Orfeo & Euridice' (Christoph Willibald Gluck)
Widmung, Romance (Robert Schumann)
Hungarian Dances Nos. 5,8,9,20 (Johannes Brahms)
Suite Populaire Espagnole (Manuel De Falla)
Love Song No.6 (Isaac Albeniz)
Andaluza (Enrique Granados)
Passpied, Beau Soir (Claude Debussy)
Entracte From 'Raymonda' (Alexander Glazunov)
Daisies, Vocalise (Sergei Rachmaninov)
- CD4 Johannes Brahms : Violin Sonatas Nos. 2 & 3
Cesar Franck : Violin Sonata
With Sviatoslav Richter
- CD5 Bela Bartok : Violin Sonata No.1
Dmitri Shostakovich : Violin Sonata
With Sviatoslav Richter

리히터의 황금기를 담은 소중한 기록들.

위대한 러시아 피아노스쿨의 대표적인 이름인 스비아토슬라브 리히터는 놀라운 테크닉을 지니고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깊은 사색의 세계를 좋아하는 내성적인 연주자이다. 그가 이끌어내는 다양한 음색은 실로 절묘한 것으로 현대의 어떤 연주자도 흉내 낼 수 없는 독특한 것이다. 리히터는 음악원에 재학 중이던 1940년에 처음으로 리사이틀을 열어 호평을 받았고, 1945년에는 전 소련 음악 콩쿨에 출전해 우승을 차지했다. 하지만 이때까지도 리히터의 이름은 서방세계에 알려지지 않았다. 그가 서방세계에 데뷔한 때는 1960년이였다. 본 에디션은 그가 서방에 알려지기 직전인 50년대 후반의 녹음들을 비롯하여, 서방에 센세이셔널한 충격을 가져왔던 데뷔 직후의 녹음들을 중점적으로 수록하고 있다.



MEL CD 10 00731

스비아토슬라브 리히터 에디션 Vol.1

English Suite No.3 In G Minor, Bwv 808

Concerto For Piano And Orchestra In D Minor, Bwv 1052

Concerto For Two Pianos And Orchestra In C Major, Bwv 1061



MEL CD 10 00732

스비아토슬라브 리히터 에디션 Vol.2

Piano Sonata No.8 In C Minor, Op.13 "Pathétique"

Bagatelles: In F Major, Op.33 No.3(Allegretto)

Piano Sonata No.23 In F Minor, Op.57 "Appassionata": Allegro Assai

Fantasy For Piano, Chorus And Orchestra In C Minor, Op.80



MEL CD 10 00733

스비아토슬라브 리히터 에디션 Vol.3

Fantasiestucke, Op.12

Humoreske In B-Flat Major, Op.20

Novelletten, Op.21



MEL CD 10 00734

스비아토슬라브 리히터 에디션 Vol.4

Moments Musicaux(Franz Schubert)

Imprompt In Ab

Etude Op.10-3, 25-5, Polonaise Op.26-1(Frederic Chopin)

Prelude, Choral & Fugue(Cesar Franck)

15 Hungarian Peasant Songs(Bela Barto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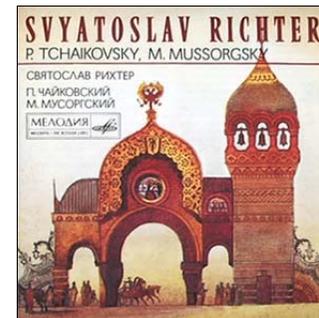
MEL CD 10 00735

스비아토슬라브 리히터 에디션 Vol.5

Piano Concerto No.2 With Ussr State Symphony / Evgeni Svetlanov(Frederic Chopin)

Piano Concerto No.5 With Moscow Youth Orchestra / Kirill Kondrashin(Camille Saint-Saens)

Symphonic Poem For Piano & Orchestra With Moscow Youth Orchestra / Kirill Kondrashin(Cesar Franck)



MEL CD 10 00515

무소르그스키 전람회의 그림 차이코프스키 그랜드 소나타

스비아토슬라브 리히터가 들려주는 러시아 피아니즘의 백미 소비에트 피아니스트의 대명사인 스비아토슬라브 리히터가 서방에 알려지기 직전에 남긴 주목할만한 레코딩. 차이코프스키의 피아노를 위한 그랜드소나타는 1956년의 녹음이고, 무소르그스키의 전람회의 그림은 1958년의 녹음. 러시아 피아노음악을 대표하는 두 걸작에 대한 가장 신뢰할만한 해석을 이 음반을 통해 만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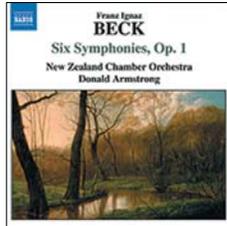
MEL CD 10 00748

리스트 초절기교 연습곡

연주: 라자르 베르만

카라얀이 경탄해마지 않았던 바로 그 전설적인 연주 베르만의 초절기교연습곡. 2005년 2월 6일 74세의 일기로 삶을 마감했던 라자르 베르만. 대 피아니스트 길레스가 '나와 리히터보다도 더 훌륭한 피아니스트' 라고 극찬해마지 않았던 위대한 피아니스트는 수차례에 걸친 내한공연과 마스터클래스를 통해 우리에게도 친숙한 이름이었다. 이 음반은 연주자의 최전성기라고 할 수 있는 1959년과 61년의 기록으로 숨이 막힐 듯한 건반위의 아크로바틱을 경험하게 된다.

Naxos New Release (낙소스 신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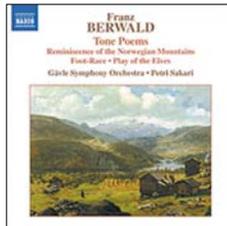
Naxos 8.554071

베크: 6개의 교향곡 Op. 1

뉴질랜드 실내 오케스트라/도널드 암스트롱(지휘)

낙소스가 사랑하는 18세기 교향곡 시리즈의 새로운 신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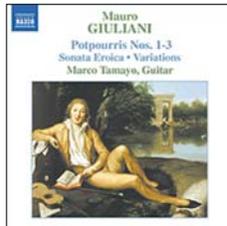
베크는 고전교향곡의 선구자인 슈타미츠의 여러 제자들 중에서도 가장 독보적인 존재였다. 창의적이고 드라마틱한 6편의 교향곡을 담은 그의 Op.1은 이 작곡가의 시대를 앞선 컬러풀한 관현악법과 담대한 화성감각을 엿볼 수 있다.



Naxos 8.555370

베르발트: 교향시

낙소스의 시벨리우스 교향곡 사이클로 큰 호평을 얻었던 핀란드출신 지휘자 페트리 사카리가 19세기 스웨덴의 국보급 작곡가 베르발트의 교향시에 도전하였다. 북구의 멋진 풍광을 담은 아름다운 선율과 대담한 화성이 돋보이는 교향시 4편과 바순의 독특한 미감을 잘 살린 콘체르트스튀크 등이 새로운 로맨틱 관현악 레퍼토리를 탐구하는 애호가들에게 큰 선물이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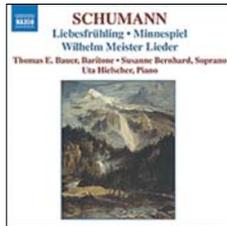


Naxos 8.555850

줄리아니: 기타음악 Vol. 2

쿠바 출신의 젊은 기타영웅 마르코 타마요의 화려한 기교

19세기의 대표적인 기타 비르투오소였던 줄리아니는 빈 고전주의와 이탈리아의 서정주의를 자신의 음악 속에 접목시켰던 작곡가였다. 이 신보에 수록된 3편의 포푸리는 오페라 아리아, 포크송, 거리의 노래들, 빈의 랠틀러 등이 교묘하게 엮여진 풍성한 음악적 태피스트리이다.”



Naxos 8.557074

슈만: “사랑의 봄” 12편의 시 Op. 37 등

낙소스의 슈만 가곡 시리즈 제2탄

뤼케르트 연작시 ‘사랑의 봄’은 19세기에 완성된 여러 연시(戀詩)들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슈만은 1840년과 1841년에 걸쳐서 이 아름다운 시 12편에 곡을 붙였다. ‘시인의 사랑’으로 호평을 얻었던 독일의 기대주 토마스 바우어의 부드러운 저음을 이번 신보에서도 변함없이 만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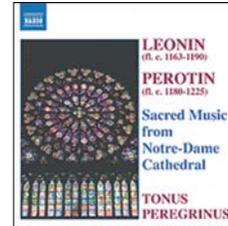


Naxos 8.557222

브리튼: 민요편곡 작품집 Vol. 2

영국의 국보급 남성가수 토마스 알렝과 필립 랑그리지

브리튼의 민요편곡을 담은 두 번째 음반. 토마스 알렝과 필립 랑그리지의 이름에서부터 연주의 권위가 느껴지며 자타가 공인하는 브리튼 스페셜리스트 베드포드의 노련한 지휘와 노턴 실포니아의 섬세한 연주가 완성도를 한층 높인다. ‘O Waly Waly’, ‘Salley Garden’ 등의 귀에 익은 선율들을 담았다.



Naxos 8.557340

레오냉/페로탱의 음악

폴리포니의 서막을 알린 노트르담악파의 음악

노트르담 성당의 완성과 함께 다성음악의 초기 형태인 오르가눔이 등장하게 되는데 노트르담 성당을 중심으로 활동한 두 작곡가 레오냉과 페로탱이 바로 오르가눔의 대표적인 거장들이다. 중세 다성음악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어온 토누스 페레그리누스의 연주는 강한 신뢰감을 느끼게 한다.



Naxos 8.557590

올윈: 피아노 협주곡집

영국을 대표하는 피아니스트 피터 도노휴의 강렬한 파워가 작열하는 음반

올해로 탄생 100주년과 서거 30주년을 함께 맞는 영국 작곡가 윌리엄 올윈. 활동한 시기는 20세기이나 그의 음악은 이전 세기의 로맨틱한 기운과 보수적인 악풍을 고스란히 머금고 있다. 라흐마니노프의 잔영이 느껴지는 대작인 2번 협주곡에서 뿜어져 나오는 도노휴의 초절기교가 눈부시다.



Naxos 8.557599

백스: 교향시

영국을 대표하는 관현악법의 마술사, 백스

네 번이나 그라모폰의 에디터스 초이스에 선정될 만큼 큰 성공을 거두었던 로이드존스의 백스 교향곡 사이클. 그 전집에 커풀링으로 함께 수록되었던 교향시 5편을 간추려 하나의 음반으로 엮었다. 작곡가 특유의 색채적인 관현악법을 경험할 수 있는 멋진 기회. ‘틴타겔’의 시작을 알리는 일출 장면의 강렬한 인상은 잊혀지지 않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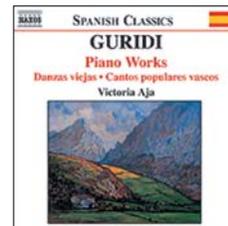


Naxos 8.557610

비르투오소: 팀파니 협주곡

팀파니를 위한 18세기 작곡가들의 재미있는 작품들

18세기 무렵에는 혼자서 10대에서 16대까지의 팀파니를 자유자재로 다루는 놀라운 재주를 보여주는 팀파니주자들이 많았다고 한다. 이들의 눈부신 활약에 기초하여 여러 작곡가들이 팀파니를 위한 흥미진진한 작품들을 남겼는데 그 일부를 이 음반에서 만나볼 수 있다.



Naxos 8.557633

구리디: 피아노 작품집

바스크 출신의 작곡가 구리디의 피아노 작품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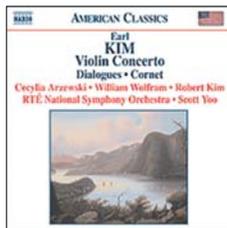
프랑스와 스페인의 틸바구니에서 자신들만의 고유한 문화를 계승해왔던 바스크인들. 이 지역의 대표적인 작곡가가 구리디이다. 향토애를 담은 다이내믹한 작품인 ‘바스코니아’를 비롯하여 이국적인 향토색이 진하게 느껴지는 개성만점의 피아노 작품들을 담았다.



Naxos 8.557668

코타로 후쿠마: 피아노 리사이들

2003년 클리블랜드 국제콩쿠르 우승자인 코타로 후쿠마의 나क्सos 데뷔 레코딩. 슈만이 수놓은 서정적인 피아니즘을 안정된 기량과 섬세한 감각으로 재현하였다. 수록곡: 환상소곡 Op.111, 아베크 변주곡, 노벨레테 Op.21 등



Naxos 8.559226

얼 김: 바이올린 협주곡 / 코넷, 다이얼로그

"미국 음악계의 존경을 받았던 동포 작곡가 얼 김은 1998년 사망한 한국계 미국 작곡가로 동양과 서양의 음악전통이 혼재된 독특한 음악세계로 신선한 충격을 안겨주었던 인물이다. 1979년에 필만을 위해 작곡된 바이올린협주곡은 작곡가의 작품을 충실히 반영한 작품. '코넷'에서는 작곡가의 조카이자 배우인 로버트 김이 낭송을 맡았다.



Naxos 8.559197

크로퍼드 지거의 작품

미국 모더니스트 무브먼트의 선구적인 인물이었던 크로퍼드 지거. 특히 1930년대 실내악 분야에서의 아방가르드 성향의 작품들로 미국음악계에 주었던 충격은 대단한 것이었다. 그의 초기 대표작인 바이올린 소나타를 위시한 실내악 분야의 대표적인 작품들이 이 음반에 수록되었다. 이 비범한 여류작곡가의 비상한 음악세계에 한번 도전해보시라.

Naxos Historical (낙소스 히스토리컬)



Naxos Historical 8.110765

슈나벨: 베토벤 피아노 작품(1937)

슈나벨 베토벤 시리즈의 마지막 음반. 베토벤의 특징적인 피아노곡 작품들인 '디아벨리변주곡', 론도 카프리치오 '잃어버린 한 푼에 대한 분노', '여섯 편의 바가텔 Op.126' 을 수록하였다. 세 작품 모두 1937년의 기록으로 베토벤 연주사의 큰 획을 남겼던 슈나벨의 예술 혼이 생생하게 전달된다." 디아벨리 변주곡, 바가텔, 론도 아 카프리치오 등.



Naxos Historical 8.110767

위대한 피아니스트 시리즈: 윌리엄 카펠(1946~1952)

불운의 천재피아니스트가 남긴 다양한 족적. 비행기 사고로 31세의 나이에 요절한 윌리엄 카펠. 그의 녹음에서 발산되는 비범한 재능은 이른 죽음을 더욱 아쉽게 만든다. 이 음반은 그가 연주한 협주곡, 독주곡, 실내악을 함께 담았다. 블라디미르 골슈만과 협연한 베토벤의 협주곡 2번. 에드문트 쿠르츠를 반주한 라흐마니노프의 첼로소나타, 슈베르트의 왈츠와 독일춤곡을 담았다.



Naxos Historical 8.110271

베냐미노 질리 Vol.10

질리 에디션의 10번째 음반. 이 음반의 중심 레퍼토리는 베냐미노 질리의 장기라고 할 수 있는 이탈리아 가곡들과 오페라 아리아들이다. 토스티의 '4월', 카치니의 '아마릴라', '라트라비아타'와 '일 트로베토레'의 아리아들, 그리고 슈베르트와 브람스의 가곡들까지도 질리의 감미로운 미성을 통해 새로운 매력을 드러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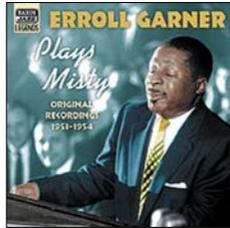
Naxos Historical 8.111018~19(2CDs)

베르디: 오텔로(1938)

30년대 최고의 오텔로를 만나다. 30년대 최고의 오텔로로 불리던 조반니 마르티넬리의 강렬한 카리스마를 체험할 수 있는 귀한 음원. 1938년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실황에 대한 방음음원으로 독일 소프라노 엘리자베스 레트베르크가 테스테모나를, 미국의 저명한 베르디 바리톤 로렌스 티베트가 이야기를 열연하였다.



Naxos Legend & Nostalgia (낙소스 리젠드 & 노스텔지어)



에롤 가너

50년대를 풍미한 재즈피아니스트의 최고봉 에롤 가너
정식으로 음악교육을 받지 않았으나 그 어느 누구보다도 부르럽고 감미로운 선율을 들려준 재즈피아니스트 에롤 가너. 그의 불멸의 히트곡 'Misty' 가 이 음반에 수록되었다. 맹인 재즈피아니스트 조지 시어링의 스탠더드 넘버 'Lullaby of Birdland' 를 가너 특유의 재기 넘치는 패러프레이징으로 감상하는 재미도 쏠쏠하다.

Naxos 8.120771



엘라 피츠제럴드

엘라 피츠제럴드 시리즈의 5번째 음반
빌리 홀리데이, 사라 본과 함께 재즈계의 3대 디바로 우리에게 알려진 엘라 피츠제럴드. 부드럽게 속삭이는 저음과 그녀 특유의 밝고 건강한 노래를 이 음반에서 만끽할 수 있다. 사라 본의 노래로도 잘 알려진 맹인 피아니스트 조지 시어링의 걸작 재즈넘버 'Lullaby of Birdland' 를 피츠제럴드의 시원시원한 보컬로 만나볼 수 있다.

Naxos 8.1207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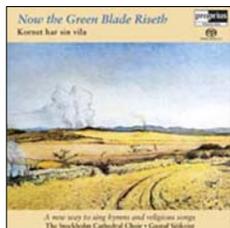


어사 키트

베테랑 뮤지컬 스타 어사 키트의 베스트 음반
오리지널 배트맨 시리즈의 캣우먼으로 한 시대를 풍미했던 어사 키트. 그녀의 50년대 히트송들을 담았다. 영화 '사랑할 때 버려야할 것들' 에 삽입되면서 새롭게 인기를 모았던 올드 히트송 'C'est Si Bon', 터키 풍 선율의 귀에 익은 바로 그 노래 'Uska Dara', 이소라가 출연한 로엠 CF의 배경음악이었던 'Santa Baby' 등을 들을 수 있다.

Naxos 8.1208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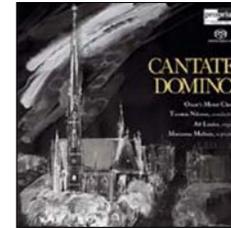
Proprius SACD (프로프리오스 SACD)



Now the green blade (SACD)

마음의 평화를 위하여!!!
너무나 각박한 세상에 지치고 힘들어 흔들리는 이에게 평화를 주노라... 전통적인 성가라 하면 오르간의 경건하고 장엄한 분위기를 떠올린다. 어쩌면 너무나 틀에 박혀 있는 음악이라 지루하게 생각 할 수 있다는 고정관념을 떨치게 하는 음반이다. 기타와 플루트, 그리고 한결 부드러워진 오르간의 울림, 잘 정리되어 울려 퍼지는 스토콜름 대성당 합창단의 음성이 마음의 평화를 가져온다. 이 음반은 1976년 새롭게 정리된 '스웨덴 성가집' 에서 뽑은 곡들로서 우리에게 너무 잘 알려진 'Spread Your Wings Over Me' 가 포함되어 있다.

PRSA9093



칸타테 도미노 SACD (HYBRID)

우리의 민요 "아리랑" 편곡으로 더 잘 알려진 음반.
프로프리오스의 음악세계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음반. 세계의 대표 성가곡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경건한 분위기를 자아내기 위해 알프 린다르의 오르간 독주를 간간히 수록하고 있다. 특히 우리의 민요 아리랑을 영국의 말콤 서전트가 편곡해 "자장가"라는 타이틀로 수록하고 있다. 유럽인들이 재현하는 우리의 민요 아리랑의 새로운 해석이 돋보이는 음반이다. 시종일관 단정하면서도 풍성한 울림이 매력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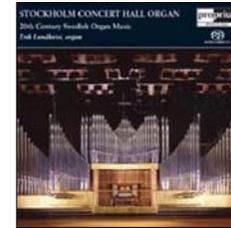
PRSA7762



봄과 사랑에 대한 전통 스웨덴 가곡들 SACD (HYBRID)

겨울이 가고 봄이 찾아오면 우리들 마음 속에는 공통되는 무언가가 있다. 그것은 우리의 어린시절 저 너머로 우리를 이끈다. 이런 느낌들은 또한 봄 노래를 부르던 19세기 스웨덴의 대학살합창단과 오늘의 우리를 이어주는 것들이다. 유서깊은 스톡홀름아카데미 남성 합창단은 매년 4월 30일 봄을 맞이하며 스칸센 야외극장에서 봄과 사랑에 대한 노래를 부른다. 청춘의 신선함과 투명함으로 가득 찬 음성으로 젊은 청년들이 들려주는 북극 작곡가들의 합창곡을 수록한 이번 앨범은 사랑처럼 우리가 뿌리 칠 수 없는 매력을 지니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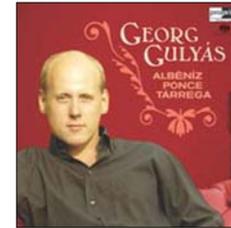
PRSA2025



20세기 스웨덴 오르간 음악 SACD (HYBRID)

연주 : 에릭 룬크바스트
힐딩 로젠베리, 하랄드 프록뢰프, 오토 울손, 구노 쇠데르스텐 등 스웨덴 현대 오르간 음악 작곡가들의 음악을 수록하고 있다. 오르간 음향은 그 엄청난 스케일 때문에 음반에 담기가 가장 까다로운 것속 속하는 데 이 음반은 SACD포맷으로 프로프리오스 사운드의 능력을 확실히 보여준다. 폭넓은 대역에 담긴 부드럽고 사실적인 오르간 음향은 바로 오르간 옆에 앉아 있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킨다. (하이브리드 SACD)

PRSA2028



게오르크 굴리아스가 연주하는 스페인 기타 명곡 (HYBRID)

타레가, 알베니스, 투리나, 모푸, 폰세 로드리게스 등 스페인 기타 명인들의 명곡들을 담은 음반.
음악은 세련된 음색을 추구하고, 파스하고 감각적인 사운드를 만들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던 타레가의 명곡들로 시작한다. 트레몰로 주법으로 환상을 만드는 '알함브라 궁전의 추억', 매력적인 작은 월츠인 '두 명의 작은 아가씨들' 도 아주 귀엽다. 알베니스의 '탱고', 격정적인 투리나의 음악, 그리고 끝으로 유명한 '라 콤파르시타' 가 후안 도밍게스의 편곡으로 다소 분방하게 연주된다. 유럽무대에서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 게오르크 굴리아스의 재기에 넘치는 연주. 프로프리오스의 환상적인 SACD 기타 음향을 들을 수 있다!

PRSA20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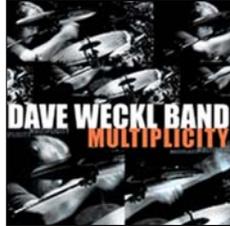


달라르나지방의스웨덴민요들

율살라 대성당 합창단 / 밀케 팔크 지휘 / 앤드류 캐닝, 오르간
스웨덴 중북부 고산지역인 달라르나(스웨덴명 :Dalecarlia) 지방은 울창한 삼림과 맑은 호수로 이어진 전체의 절경을 자랑하는 곳. 16세기 덴마크로부터의 독립에 기틀이 되었던 지역으로, 자신들 고유문화에 대한 자긍심도 높다. 이 지역의 민요를 이 소 출신 작곡가 닐스 린드베리가 오르간 반주의 합창음악으로 편곡하였고 율살라 대성당 합창단이 아름답게 노래하였다. 최상의 녹음을 지향해온 Proprius의 기술력은 SACD에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된 모습을 보여준다.

PRSA2032

Concord Jazz (콩코드 재즈)



SCD 90442

Dave Weckl Band – Multiplicity

무엇보다도 이번 앨범은 역대 데이브 웨클 밴드 중에서도 최정예 멤버로 이루어져 있다. 자코 패스토리우스, 지미 하슬립의 연상시키는 베이시스트 톰 케네디, 칩 코리아의 영향을 받은 키보디스트 스티브 바인가르트, 마이클 브레커 이후 퓨전과 포스트 밥을 넘나드는 최고의 색소포니스트 케리 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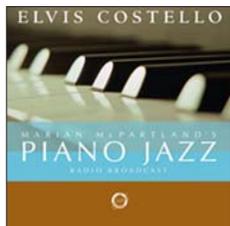
이들은 모두 지난 <Live> 앨범에서 발군의 실력을 선보였던 뮤지션들로 지난 몇 해간 데이브 웨클 밴드의 일원으로 투어를 함께 돌며 탄탄한 팀워크를 구축하였다. 이들과 함께 데이브 웨클은 <Perpetual Motion>에서 또 한번의 이동을 통해 그동안 간절히 찾아 헤매던 데이브 웨클 밴드만의 독창적인 사운드를 찾아냈다.

사실 90년 GRP 레이블에서 솔로 데뷔작을 발표할 당시만해도 데이브 웨클은 칩 코리아의 일렉트릭 밴드의 일원으로 테크닉 위주의 퓨전 재즈 뮤지션으로 평가받고 있었다. 하지만 칩 코리아가 이끄는 스트레치 레이블로 이적 후에야 그는 비로소 자신의 밴드를 결성할 수 있었고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테크닉의 연마는 물론 자신만의 음악을 찾기 위한 음악 여행을 시작하였다. 그가 <Multiplicity>에서 찾아낸 음악은 퓨전과 포스트 밥을 넘나들며 멤버들의 역량을 최대한 이용한 철저하면서도 완벽한 앙상블!

과거 칩 코리아 일렉트릭 밴드 시절, 칩 코리아, 에릭 마리엔탈, 프랭크 갬벨리, 존 파티투치와 함께 그가 선보였던 콤팩트한 사운드를 발전시켰으며 여기에 현대적인 포스트 밥을 가미하였다. 더욱이 다양한 퍼커션과 드럼 키트 구성을 통해 보다 풍부해진 더욱 발전된 그의 드러밍을 확인할 수 있다.

초절기교 테크닉의 향연장인 'What It Is' 자로 쟁 듯 정확한 연주와 탄성을 자아내는 'Chain Reaction' 등 마치 프로그래밍된 음악을 연주하듯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한 박자와 음정 그리고 컨템포러리 재즈임에도 불구하고 진보적인 성향을 잃지 않는 멤버들의 창조적인 플레이는 당대 최고의 재즈 밴드로 그들을 지목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든다.

전세계 드러머가 손꼽아 기다렸고 전 세계 재즈팬들을 감동시킬 데이브 웨클의 새로운 음악세계에 다 같이 빠져봅시다!



TJA 12049

Marian McPartland with Elvis Costello <Piano Jazz>

재즈계의 대모, 마리안 맥파트랜드의 전설적인 라디오 프로그램 Piano Jazz에 엘비스 코스텔로가 참여하였다. 자신들의 음악에 대한 진솔한 얘기는 물론 피아노-보컬 듀오의 생생한 연주까지!

'My Funny Valentine' 'Gloomy Sunday' 'You Don't Know What Love Is' 'The Very Thought Of You' 와 같은 친숙한 스탠다드에서 엘비스 코스텔로의 대표곡 'Almost Blue' 'I'm In The Mood Again' 에 이르기까지 엘비스 코스텔로가 발표한 재즈 발라드 앨범이라 해도 결코 손색이 없을 것이다.

Carole King:
The Living Room Tour

작년 십여년만에 재개한 Living Room Tour 실황을 담은 이 앨범에는 'I Feel The Earth Move' 'Natural Woman' 'You've Got A Friend' 'Will You Still Love Me Tomorrow' 'Locomotion' 등 전세계 음악팬들의 사랑을 받았던 그녀의 주옥 같은 27곡의 작품이 두 장의 시디에 빼곡히 담겨있다.

특히 그녀의 대표작 <Tapestry>의 수록곡들은 물론 60년대 초창기 작품에서 최근작 <Love Makes The World> 그리고 두 곡의 신곡까지 40여년에 걸친 음악인생을 진솔하게 얘기하고 있다.

앨범의 백미는 'I Feel The Earth Move' 'Natural Woman' 'You've Got A Friend' 'Locomotion' 으로 캐롤 킹과 관객들이 혼혈일체가 되어 빛어내는 아름답고 감동적인 하모니는 눈시울을 뜨겁게 만들거까지 한다.



대중 음악이 점차 엔터테인먼트로 빠져 들고 있는 요즘 진정한 뮤지션이란 어떤 것인지, 좋은 노래가 무엇인지 그 답을 제시하는 듯하다. 우리 시대 여전히 진정한 음악이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명작이요, <Tapestry>와 함께 영원히 기록될 캐롤 킹(Carole King)의 대표작으로 남으리라.

CCD 6200(2CDs)

BBC DVD



라모 <우아한 인도의 나라들> BBC/Opus arte OA0908D

프롤로그와 4개의 막으로 구성된 오페라 발레 '우아한 인도의 나라들' (Les Indes Galantes)은 라모의 두 번째 극음악작품. 제목의 인도는 인도라는 특정 나라가 아니라 당시 유럽 이외의 지역을 통칭하는 의미로 사용된 단어. 어쩌면 '우아한 이방(異邦)의 나라들'이 더 자연스러운 번역이 될 수도 있겠다. 4개의 막은 각각 터키, 잉카, 페르시아, 북미인디언의 이국적으로 펼쳐지는 흥미진진한 사랑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1막은 모차르트의 오페라 '후궁으로의 유괴'와, 3막은 '코지 판 투레'와 내용적으로 연결된다. 안드레이 세르반의 연출, 블랑카 리의 안무, 크리스티의 지휘가 결합된 이 프로덕션은 지금까지 국내에 소개된 그 어떤 바로크 오페라의 영상물들보다도 재미라는 측면에서 가장 우수한 영상이라고 자신있게 단언할 수 있다. 기발하면서도 화려한 무대장치와 의상, 흥겨운 춤과 노래, 아슬아슬한 곡예가 결합된 버라이어티 엔터테인먼트의 진수를 이 영상에서 만날 수 있다. 최고의 인기를 구사하고 있는 여러 바로크음악 전문가들의 훌륭한 노래와 능청스러운 연기를 만날 수 있는데 특히 파트리샤 프리팅의 깜찍한 외모와 발랄한 연기는 발군이다. 마지막 파격적인 앙코르에서는 '해피 맨' 크리스티의 진면목을 만날 수 있다. 지휘자, 연출가, 가수들의 인터뷰를 통해 작품에 대한 보다 폭넓은 이해를 가능케 하는 52분 분량의 보너스 트랙도 수록되었다.

TDK DVD



몽유병의 여인 TDK DVD DVWW-OPSON

낭만주의의 몽환적 분위기를 상징하는 걸작 오페라, 그 40년만의 영상물 19세기 전반기의 낭만 오페라에서는 유독 정신병이나 몽유병에 걸린 여주인공이 많이 등장한다. 베르디의 <맥베트>에서는 몽유병이 자살이라는 파국에 이르지지만, 벨리니의 <몽유병의 여인>에서는 주인공 아미나가 연인에게 의심 받는 단서와 오해를 푸는 실마리를 모두 몽유병이 제공함으로써 해피 엔딩이 된다. 2004년 1월 마지오 무지갈레 피오렌티노(피렌체) 실황. 가장 청아한 음성의 벨칸토 소프라노로 꼽히는 에바 메이와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는 미성의 테너 호세 브로스가 주역을 맡았다. 또한 울가를 예술의 전당에서 <나부코>를 지휘하는 이탈리아 오페라계의 거장 다니엘 오렌이 지휘대에 섰다.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이탈리아 극장계이지만 페데리코 티에치의 연출은 심리학적 분석을 가미한 최신 스타일이다. 시대배경을 19세기말로 바꾼 가운데 대 모든 사건은 아미나의 꿈에서 벌어지는 것처럼 해석했다. 오페라의 하이라이트인 '다리를 아슬아슬하게 건너는 몽유 상태의 아미나'는 알프스의 눈 덮인 산에 놓인 철골 다리를 걷는 것으로 설정하여 긴장감을 더한다.



마술피리 TDK DVD DVWW-CLOPMF

장 피에르 폰넬 연출 / 1982년 잘츠부르크 페스티벌 실황 페터 슈라이어(타미노), 일레아나 코트루바스(파미나), 에디타 그루베로바(밤의 여왕), 마티 탈베라(자라스트로) 크리스티안 뵈슈(파파게노), 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제임스 레바인 정겨운 성악가들이 만들어낸 동화वाद도 같은 무대. 1978년 처음 잘츠부르크 페스티벌의 무대에 오른 뒤 무려 9년 동안이나 반복 공연되면서 관객들의 큰 사랑을 받았던 장 피에르 폰넬 연출의 마술피리. 그 중 1982년 8월 21일의 실황을 담은 영상물이다. 잘츠부르크 페스티벌의 야외무대이자 뮤지컬 영화 '사운드 오브 뮤직'을 통해 낯익은 바위승마학교(Felsenreitschule)에서 펼쳐진 공연으로 베로나 아레나에 필적하는 넓은 무대와 암벽배경을 효과적으로 활용한 폰넬의 연출이 탁월하다. 전반적인 연출의 분위기는 사실적이면서도 동화처럼 아기자기하고 정겹다. 페터 슈라이어의 감미로운 타미노, 일레아나 코트루바스의 사랑스러운 파미나, 에디타 그루베로바의 전율적인 밤의 여왕, 마티 탈베라의 근엄한 자라스트로, 이 프로덕션의 실질적인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크리스티안 뵈슈의 파파게노 등등 각 배역에 최적화된 올스타급 성악진의 화려한 면면만으로도 즐겁다. 지휘대와 글로켄슈필을 바쁘게 오가다가 한순간 무대에도 참견하는 제임스 레바인의 모습도 재미있다.

폭발적인 인기... 귄터 반트 에디션 파트 1

1996, 1998, 2000, 2001년 슈레스비히-홀슈타인 페스티벌 실황

브루크너 교향곡 5,6,8,9번, 하이든 교향곡 76번, 슈베르트 교향곡 8번 TDK DVD DVUS-COWANDBOX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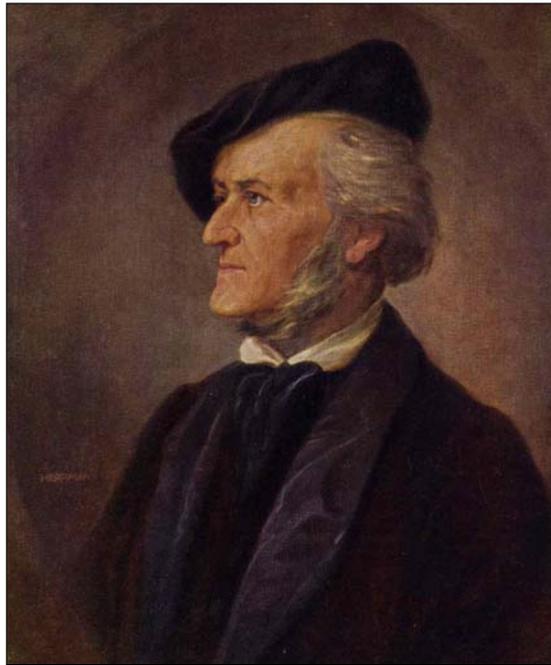
북독일 방송 교향악단 / 귄터 반트



거장의 숨결과 함께 이글거리던 북독일의 네 가지 불꽃! 2002년 2월 14일 90세의 일기로 사망한 20세기 마지막 독일의 거장 귄터 반트. 노쇠한 육신의 한계를 초월하여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찬연히 불타올랐던 그의 위대한 예술혼을 이 숭고한 영상물을 통해 생생하게 확인할 수 있다. 거장이 평생에 걸쳐 같고 닮았던 브루크너의 중후기 교향곡들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그의 마지막 동반자였던 북독일 방송(NDR)교향악단과의 연주라는 점에서 더욱 값있다. 수록된 네 교향곡은 모두 뤼베크에서 펼쳐진 슈레스비히-홀슈타인 국제음악제에서의 실황을 담은 것으로, 각각 1996년(6번), 1998년(5번), 2000년(8번), 2001년(9번)의 기록들이다. 이 영상물들에는 그 어떤 후면 드라마들보다 더한 거대한 감동이 담겨있다. 네 연주 모두가 너무나 소중하지만 그의 거의 마지막 콘서트였던 2001년 7월 8일의 9번은 숭고한 종교적 감동 같은 것을 느끼게 한다. 지휘대 위에 그냥 서있는 것조차 힘겨워 보이는 노쇠한 모습이지만 그의 절제된 손끝과 여전히 날카롭게 빛나는 눈빛을 통해 구현되는 브루크너의 세계는 그 어떤 연주들보다도 장엄하고 웅대하다. 북독일 방송 교향악단의 단원들은 자신들을 독일을 대표하는 브루크너 오케스트라로 조련시켜주었던 노대가에게 혼신을 다한 뜨거운 연주로 화답하며, 홀을 가득 메운 관객들 역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기립박수로 존경심을 나타낸다. 브루크너가 미처 완성하지 못했던 거대한 우주의 마지막 화음이 아스라이 잦아든 후 찾아오는 숨 막힐 듯한 정적의 감동은 쉽게 잊혀지지 않는다.



니벨룽의 반지, 2005년 클래식 음악계의 ‘뜨거운 감자’



올 하반기에 국내 최초로 바그너의 악극 <니벨룽의 반지> 전곡 공연이 이뤄진다. 바그너 마니아들은 말할 것도 없고 바그너에 많은 관심이 없거나 아직 잘 모르는 클래식 음악 애호가들도 벌써부터 설레는 가슴을 주체할 수 없어 야단이다. 이 악극의 공연소식이 클래식 음악계의 핫이슈가 되어 있는 것은 <니벨룽의 반지>가 일반적으로 무대에 올려지는 오페라와는 차원이 다른 작품이기 때문이다.

<니벨룽의 반지>란 ‘라인의 황금’ ‘발퀴레’ ‘지크프리트’ ‘신들의 황혼’ 등 바그너의 네 개의 시리즈 악극을 말한다. 바그너는 이 4부작의 대본과 음악을 손수 썼는데, 1848년부터 이야기를 만드는 일에 착수해서 전체 완성까지 걸린 시간이 장장 26년에 달한다. 악극 네 개를 묶은 4부작이기 때문에 전체 공연은 하루에 마칠 수 없고, 보통

16시간의 공연내용을 나흘에 걸쳐 나눠서 보여주게 된다. 이렇듯 엄청난 대작이기 때문에 유럽의 본고장에 가더라도 4부 악극 전체 공연을 관람할 기회는 그리 흔치 않다.

이제 국내에서도 <니벨룽의 반지> 전작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왔다. 9월 24일부터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 올려지는데, 그 역사적 사건을 마련해줄 지휘자는 러시아 출신으로 현재 최고의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는 발레리 게르기에프. 악극의 프로덕션은 게르기에프가 맡고 있는 상트페테르부르크 마린스키 극장의 것이다. 이 마린스키 극장 프로덕션은 2003년에 독일의 바덴바덴에서 선을 보여 ‘환상적인 연출’이라는 극찬을 얻어낸 바 있다.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는 지휘자의 그 유명한 마린스키 버전이 올려진다고 하니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평생 잊지 못할 감동의 순간이 될 것이다.

물론 바그너의 이 대작은 그리 만만한 작품이 아니다. 신화에 대한 이해는 기본이고, 바그너의 악극에 관한 많은 지식이 있어야 제대로 감상하게 되는 것이다. 아직 시간이 좀 있으니 관련서적을 많이 읽어두고, 음반이나 영상물을 미리 봐 두는 것이 좋겠다. 준비하지 않고 보러 가면 감동은커녕 지루함을 느끼기 쉬울 테니까. 이것저것 공부하기 귀찮으면 우선 전 4부작을 안방에서 모두 감상할 수 있는 DVD 영상물을 보는 것이 좋다. 마침 BBC Opus Arte에서 나왔고, 최근 많이 팔리고 있는 좋은 아이템이 있어서 소개한다.



라인의 황금 BBC/Opus arte OA0910(2DVD)

‘바이로이트의 전설’ 하리 쿠퍼의 업그레이드된 <라인의 황금> 바이로이트 가극장의 <반지> 공연사에서 가장 큰 논란과 격찬을 동시에 불러 일으킨 연출자로는 1970년대 후반의 파트리스 셰로, 1980년대 후반의 하리 쿠퍼가 꼽힌다. 두 연출 모두 영상물로 제작되었으나 쿠퍼의 것은 DVD로 재발매되지 않아 큰 아쉬움을 주었다. 그러나 하리 쿠퍼가 1990년대에 베를린 도이치 오페라를 위해 완전히 새롭게 연출한 <반지>의 영상물이 드디어 발매된다. 2003시즌과 2004 시즌에 걸쳐 바르셀로나의 리세우 극장에 올려졌던 시리즈의 일환이다. <라인의 황금>은 나흘에 걸쳐 펼쳐지는 전체 사이클의 전야(前夜)에 해당하는 작품이며 반지를 둘러싼 권력욕의 근원, 보탄의 책임과 신들의 운명 그리고 파프너에게 넘어간 반지의 소재를 설명한다. 전위적이었던 바이로이트 프로덕션에 비해 하리 쿠퍼의 연출은 훨씬 설득력이 커졌으며, 세계 최고수준을 자랑하는 리세우 극장의 무대를 활용하여 빛나는 공연이 펼쳐진다. 한국이 자랑하는 베이스 연광철이 거인 파졸트 역을 맡았다.

<보조자료> ○ (1장) 라인 강물 속의 세 요정이 헤엄치며 놀고 있다. 지하세계 니벨룽족의 알베리히가 나타나 그들을 회롱하지만 오히려 멸시를 당할 뿐이다. 알베리히는 요정들로부터 이 황금으로 반지를 만들어 끼는 자는 세계를 지배하는 권력을 얻는 대신 영원히 사랑을 포기해야 한다는 비밀을 엿듣는다. 알베리히는 황금을 빼앗아 달아난다. ○ (2장) 최고의 신 보탄과 그의 아내 프리카 눈앞에 웅장한 발할성이 보인다. 신과의 계약에 따라 거인 파프너와 파졸트 형제가 지은 것이다. 보탄은 그 대가로 처제인 프라이아를 주기로 약속했다. 거인 형제가 나타나 약속대로 프라이아를 달라고 한다. 프리카의 원망으로 곤경에 빠진 보탄은 꽤 많은 로게의 지혜를 빌린다. 로게는 알베리히의 황금과 반지 얘기를 꺼내고, 거인들은 프라이아보다 황금과 반지를 탐내게 된다. ○ (3장) 지하세계로 내려간 보탄과 로게 일행은 알베리히를 속여 그를 포획하고 지상으로 끌고 온다. ○ (4장) 잡혀온 알베리히는 할 수 없이 지하로부터 황금을 날라 오게 한다. 여기에 더하여 권력의 상징인 반지마저 빼앗긴 알베리히는 무서운 저주를 반지에게 퍼붓고 풀려난다. 보탄은 반지만큼은 꼭 소유하고 싶지만 황금이 모자라므로 반지를 내놓으라는 거인 형제의 요구와 대지의 여신 에르타의 경고 때문에 하는 수없이 반지를 거인에게 내놓는다. 반지의 저주는 금방 효력을 발휘하여 거인 형제 사이에 다툼이 벌어지고 동생 파프너가 형 파졸트를 때려죽인다. 상황이 끝나자 보탄 일행은 풀려난 프라이아를 데리고 새로 지어진 발할성으로 입장한다. 영리한 로게는 이것이 종말의 시작임을 예감한다.



발퀴레 BBC/Opus arte OA0911(3DVD)

하리 쿠퍼의 예리한 연출력이 돋보이는 <반지>시리즈 최고의 인기작 첨단 시설로 재무장한 바르셀로나의 리세우 가극장은 의욕적인 프로덕션을 연달아 선보이며 라 스칼라의 아성까지 위협하고 있는 유럽 오페라계의 새로운 명문이다. <반지> 4부작의 전반부 두 편은 2003~04년 시즌에 공연되었는데, 바이로이트 역사상 최고의 격찬과 논란을 동시에 불러일으킨 하리 쿠퍼가 연출을 맡았다. 특히 본 공연은 베를린의 도이치 슈타츠오페라를 위한 개정판 프로덕션에 기초하고 있어 바이로이트에서의 전위적이고 추상적인 면이 다소 순화되고 현대인이라면 충분히 수용할만한 무대가 펼쳐지고 있다. <발퀴레>는 지크문트와 지클린데의 기억할 수 없는 근친상간적 사랑, 신의 신분이면서도 수많은 약점을 지닌 보탄 일가의 문제, 애증이 교차하는 브린힐데와 그녀의 부친인 보탄과의 논쟁을 통해 영웅 지크프리트의 등장을 예고하고 그 의미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반지> 4부작 중에서 가장 인기 있는 작품이다.

<보조자료> ○ (1막) 적에게 긴 지크문트가 지클린데의 집으로 뛰어든다. 둘은 묘한 친근감을 느낀다. 귀가한 지클린데의 남편 훈당은 지크문트에게 결투를 신청하고 둘은 다음날 싸우기로 한다. 훈당이 잠들자 지클린데는 지크문트에게 다가와 격렬한 사랑의 감정을 토로한다. 지크문트는 기둥에 깊이 박힌 보검을 보고 아버지(보탄)와의 약속을 떠올리는데 이를 통하여 둘이 자매임을 깨닫는다. 하지만 이미 불붙은 사랑을 어찌할 수 없다. 지크문트는 보검을 단번에 뽑아내고 함께 숲으로 달아난다. ○ (2막) 최고신 보탄은 인간 세상에 남겨둔 아들 지크문트를 지키라고 딸 브린힐데에게 명한다. 그러나 결혼의 신인 아내 프리카는 근친상간의 죄값으로 지크문트의 죽음을 요구한다. 보탄은 감동 끝에 브린힐데에게 훈당의 편에 서라고 지시를 바꾼다. 브린힐데와 이중창을 통해 보탄은 사랑과 권력을 동시에 추구한 결과 신의 종말이 다가오고 있다며 탄식한다. 그러나 막상 결투가 벌어지자 브린힐데는 지크문트를 편든다. 당황한 보탄이 직접 나서서 훈당이 지크문트를 죽이도록 한다. 브린힐데는 지크문트의 아이를 임신한 지클린데를 신고 달아난다. ○ (3막) 자매들(발퀴레)이 모여 있는 곳에 브린힐데가 지클린데를 데리고 나타난다. 지클린데가 슬픔에 잠겨 죽으려고 하자 브린힐데는 아들을 낳을 것임을 알려주며 진정시키고 피난처를 알려준다. 보탄은 명령을 어긴 브린힐데를 벌하기로 한다. 신성(神性)을 빼앗아 발할 성에서 추방하는 것이다. 브린힐데는 지크프리트가 태어났으므로 지크문트의 자손이 이어질 것임을 알리며 용서를 빈다. 보탄은 로게를 불러 잠든 브린힐데를 불의 원 안에 가두도록 명령한 후 두려움을 모르는 자만이 불을 뚫고 들어가 브린힐데를 구원하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TDK DVD

TDK DVD DVW-OPDG

모차르트 : 돈 조반니 / 리카르도 무티(지휘)

연주 : 카를로스 알바레즈(돈 조반니), 일데브란도 다르칸젤로(레포렐로), 아드리안 피츨카(돈나 안나), 안나 카테리나 안토나치(돈나 엘비라), 안젤리카 키르히술라거(체를리나), 미카엘 사데(돈 오타비오)



미 증견으로 지금은 세계 최고 반열에 올라있는 카를로스 알바레즈(돈 조반니), 아드리아네 피츨카(돈나 안나), 안나 카테리나 안토나치(돈나 엘비라), 안젤리카 키르히술라거(체를리나), 일데브란도 다르칸젤로(레포렐로), 미하엘 사데(돈 오타비오) 들이다. 또한 '제왕' 리카르도 무티가 강력한 카리스마로 물샴틈없는 연주를 펼치면서 로베르토 데 시모네와 함께 이탈리아 풍이 대폭 보장된 모차르트 오페라를 구현했다.

<보조자료>

○ 모차르트의 오페라는 크게 <후궁 탈출>, <마술 피리> 같은 독일어 오페라와 <피가로와 결혼>, <돈 조반니>, <코지 판 투테> 등 이탈리아어 오페라로 구별되는데 이중 작품성을 더 인정받는 것은 이탈리아 오페라이다. 또한 언어적인 특징과 더불어 음악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이탈리아 오페라의 전통에 입각하고 있다. 전설적인 호색한의 얘기를 다룬 <돈 조반니>는 빈에서 작곡되어 체코의 프라하에서 모차르트 자신의 지휘로 초연되었으며 희극적인 요소와 무겁고 교훈적인 내용이 혼재하는 독특한 작품이다. 그래서 오페라 부파나 오페라 세리아가 아닌 드라마 지아코소(Drama Giacoso)로 불리기도 한다.

○ 이 공연의 지휘를 맡은 당시 라스칼라의 수장 리카르도 무티(최근 사임)와 역시 이탈리아 출신의 연출가 로베르토 데 시모네는 빈 슈타츠

오페에서 다 폰테의 대본에 의한 모차르트의 이탈리아 오페라 모두를 공연한 바 있다. 모차르트 오페라의 이탈리아 스타일을 이해한 빈 슈타츠오페의 해안이다. 특히 이 <돈 조반니>는 프로덕션뿐 아니라 출연 가수들도 절찬을 받아 라스칼라와 라벤나 페스티벌에 고스란히 초대되기도 했다.

○ 밀로스 포먼의 영화 <아마데우스>에도 묘사되었듯이 <돈 조반니>는 대중적인 면모가 강하다. 따라서 로베르토 데 시모네와 제작진은 공연장을 빈 슈타츠오페 대신 테아테어 안 데어 빈으로 잡았다. 이 극장은 모차르트의 절친한 친구였던 에마누엘 슈카네더가 만든 서민적 공연장이다. 대신 무티의 지휘는 무척 엄격하고 이 오페라가 담고 있는 다면적 성격이 드러나도록 했다.



지크프리트 BBC/Opus arte OA0912(3DVD)

'반지' 연출의 전설, 하리 쿠퍼의 혁명적 프로덕션, 그 세 번째 이야기
하리 쿠퍼의 혁신적 연출로 다시 태어난 반지는 원작의 신화적 의미를 보존하면서도 무대와 의상에 기계적 현대성을 가미하여 충격적인 무대를 선보인다. <라인의 황금>, <발퀴레>에 이른 세 번째 이야기 <지크프리트>에서도 그런 시각은 유효하며 전체 시리즈를 관통하는 일관성을 치밀하게 유지하고 있다. 영웅으로 성장한 지크프리트는 깨어진 부친의 보검 '노퉁'을 복원하고 반지를 지키던 괴물 파프너를 단칼에 물리쳐 반지를 차지한다. 이를 통하여 신비한 힘을 얻지만 사실은 반지에게 주어진 저주를 동시에 넘겨받은 것이었다. 지크프리트는 모험을 거듭하여 바위산의 불길을 뚫고 브륄힐데에게 키스함으로써 그녀를 긴 잠에서 깨운다. 세계 최고의 첨단시설을 자랑하는 바르셀로나의 리세우 극장의 2004년 6월 실황으로 최상의 화질과 음질을 보장한다.

<보조자료> ○ (1막) 알베리히의 동생인 대장장이 미메는 괴력을 지닌 지크프리트를 키우고 있다. 거인 파프너를 죽이고 반지를 빼앗을 영웅임을 알기 때문이다. 지크프리트 역시 미메를 추궁한 끝에 자신이 미메의 아들이 아니라는 사실과 부러진 보검(노퉁)의 얘기를 듣게 된다. 나그네 차림의 보탄이 나타나 미메와 목숨을 건 수수께끼 시합을 한다. 그리고 그 승리의 권한인 미메의 목숨을 지크프리트에 넘긴다고 말한 뒤 사라진다. 미메는 보검을 혼자 힘으로 수선한 지크프리트를 앞세워 파프너 처치에 나선다. 지크프리트가 반지를 차지하면 그를 죽여 빼앗는다는 음모를 숨긴 채... ○ (2막) 파프너의 동굴 앞에 알베리히도 반지를 노리며 진을 치고 있다. 보탄이 나타나 미메의 음모를 알려준다. 보검을 들고 등장한 지크프리트는 파프너를 단칼에 처리해버리고 그의 피를 맞봄으로써 새의 말을 알아듣는 신통력을 갖게 된다. 산새는 반지와 마술투구를 취하라 말하고 미메의 음모도 알려준다. 지크프리트는 미메를 죽이고 알베리히는 놀라 달아난다. 산새는 두려움을 모르는 자만이 바위산에 잠든 브륄힐데를 깨울 수 있다고 알려준다. ○ (3막) 보탄은 대지의 여신 에르다를 불러 자신의 미래를 물지만 신통한 답을 얻지 못한다. 보탄은 자기 손자에 해당하는 인간인 지크프리트의 힘을 시험하기 위해 바위산으로 향하는 그의 길을 막는데 보검의 위력에 창을 부러뜨리고 만다. 이로서 보탄은 최고신의 위엄을 상실한다. 지크프리트는 불의 벽을 뚫고 들어가 브륄힐데에게 키스를 한다. 브륄힐데는 긴 잠에서 깨어나 그녀의 구원자를 사랑으로 맞이한다.



신들의 황혼 BBC/Opus arte OA0913(3DVD)

<반지>시리즈의 마지막 이야기에 그려낸 영웅의 죽음과 신들의 멸망!
바그너의 장대한 서사시적 오페라 <반지>. 그 4부작의 피날레는 지크프리트와 브륄힐데의 영원할 것 같았던 사랑이 음모에 의해 일그러지고, 지크프리트는 그 대가로 영웅답지 않은 허무한 죽음을 맞이하며, 이런 운명적 과정을 통해 신들의 세계가 멸망하는 과정을 웅혼한 드라마로 보여준다. 혁신적 연출로 유명한 하리 쿠퍼의 프로덕션은 이런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는데, 왜 하리 쿠퍼가 4부작의 시발점인 <라인의 황금>부터 반지를 마치 팔찌처럼 큰 사이즈로 제작되었는가 하는 의문점이 마지막 장면의 독특한 해석을 통해서 밝혀진다. 원래 베를린을 위한 하리 쿠퍼의 신연출을 바르셀로나 리세우 대극장으로 옮겨온 2004년 6월 실황. 특히 데보라 폴라스키의 온 몸을 던진 브륄힐데 해석과 마티 살미넨이 구현한 '절대 악역' 하겐이 인상적이다.

<보조자료> ○ (서막) 영웅 지크프리트는 새로운 모험을 찾아 떠나려 하고 브륄힐데는 이를 말리지 않는다. 지크프리트는 반지를 브륄힐데에게 주고 브륄힐데는 명마 그루네를 길 떠나는 지크프리트에게 선사한다. ○ (1막) 알베리히의 아들 하겐이 기비홍 성주인 군터에게 제안한다. 군터는 브륄힐데와, 그 여동생 구트로네는 지크프리트와 결혼하라는 것이다. 이때 지크프리트가 성을 찾아온다. 구트로네가 지크프리트에게 묘약을 먹여 브륄힐데를 잊게 만들자 지크프리트는 구트로네에게 청혼한다. 군터는 결혼의 조건으로 자신이 브륄힐데와 결혼할 수 있도록 도와라고 요청한다. 그사이 보탄은 다른 말을 시켜 브륄힐데의 반지를 라인 요정들에게 돌려주라고 청하지만 브륄힐데는 거절한다. 지크프리트는 마법투구 덕분에 군터로 변장하여 브륄힐데의 반지를 빼앗고 그녀를 납치한다. ○ (2막) 브륄힐데는 군터의 신부로 기비홍 성에 도착하는데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지크프리트에게 극도의 배신감을 느낀다. 결국 브륄힐데는 하겐의 포임에 넘어가 영웅 지크프리트의 치명적 약점인 등에 있음을 알려 준다. ○ (3막) 하겐은 지크프리트에게 약을 먹여 브륄힐데에 대한 사랑을 되살리게 한 뒤 군터와 의형제의 맹세를 어겼다는 구실로 등을 찔러 죽인다. 이 죽음으로 서로간의 의심과 분노가 폭발하고 하겐은 반지를 차지하고자 군터마저 죽인다. 모든 진상을 알게 된 브륄힐데가 작장더미를 쌓게 하고 지크프리트의 시신에 불을 붙이고 자신도 불속에 뛰어든다. 순간 라인강이 범람하여 시신을 거두고 반지는 라인 처녀에게 돌아간다. 불은 기비홍 성을 삼키고 발할 성까지 번져 나간다.

아름다웠던 음악 패트론 박성용 명예회장님, 현의 선율을 담아 당신과의 작별을 고합니다.

- 故 박성용 명예회장 추모 음반집 제작

금호문화재단은 지난 5월 23일 타계한 故 박성용 금호아시아나그룹 명예회장의 49재(2005년 7월 10일)를 맞아 평소 박회장이 각별한 애정을 기울였던 바이올리니스트 권혁주(1985년생, 모스크바 음악원 재학), 김혜진(1985년생, 커티스 음악원 재학)의 2005년 금호아트홀 실황 연주와 2000년 발매된 금호현악4중주단의 소품집 등 3개의 CD를 담은 추모 음반집을 제작했다.

각각 2005년 1월 14일과 3월 4일, 금호아트홀 금요스페셜 시리즈로 열린 권혁주와 김혜진의 연주회 실황을 담고 있는 이 음반집은 “금호 클래식스” 레이블로 제작되었다. 금호 클래식스 레이블은 생전의 박 회장이 음악 영재 및 젊은 음악인들의 연주회 실황 음원을 보관, 음반으로 제작하여 연주자 본인은 물론 음악 전공 학생들에게 교육적 차원에서 보급되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시작, 박 명예회장이 새로운 의지를 가지고 진행해 온 영재 지원 프로젝트 중 하나였다.

2004년 칼 닐센 국제 바이올린 콩쿠르 우승, 2005년 퀸 엘리자베스 국제 콩쿠르 입상자인 권혁주와 2004년 메뉴힌 국제 바이올린 콩쿠르 우승자인 김혜진, 두 동갑내기 바이올리니스트는 생전의 박 명예회장이 지대한 애정과 지원 하에 키웠던 대표적인 음악 영재들. 특히, 이들의 연주는 금호악기은행이 대여 중인 고악기 몬타냐(D. Montagnana, 1740/김혜진)와 과다니니(J. Guadagnini, Turin 1774/권혁주)로 녹음되었다.

금호문화재단은 금호 클래식스의 첫 실황 음반 탄생을 보지 못하고 안타깝게 타계한 고 박 명예회장의 영재 지원 의지에 대한 뜻을 기리고, 우리 사회의 독보적인 예술 후원자였던 고인과의 마지막 작별을 고하는 49재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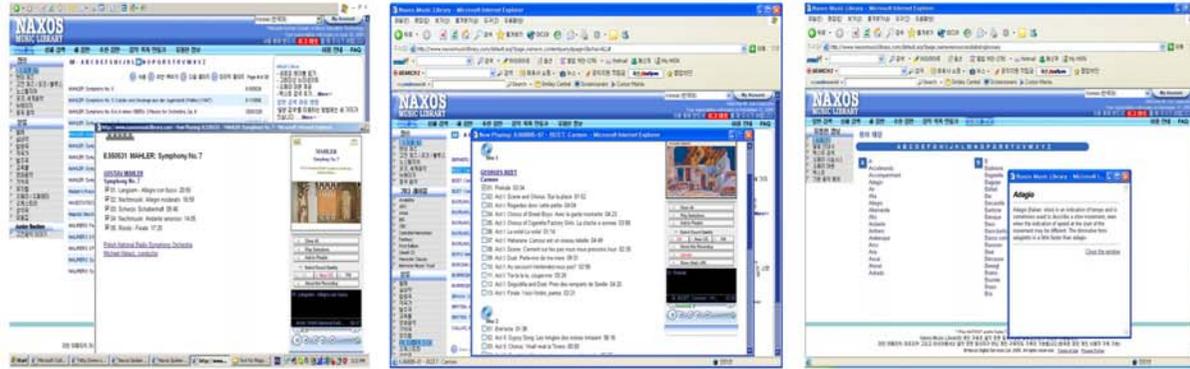


맞아 첫 음반을 박성용 명예회장 추모 음반집으로 기획하게 되었다.

음반은 박 명예회장의 일생을 담은 15분 분량의 동영상 CD, 각계 인사들의 추모글과 생전 사진으로 구성된 추모 문집 등과 함께 49재 내빈 및 금호아시아나 그룹 직원들에게 1차 배포될 예정이다.

향후 발매될 이 음반집의 수익금은 전액 금호문화재단의 한국 영재 지원 사업을 위해 쓰여질 계획이다.





세계 최대 규모의 낙소스 온라인 클래식 뮤직 라이브러리

Naxos 는 다른 어떤 클래식 레이블이나 음반사들보다 월등히 많은 새로운 레코딩 제작으로 최대의 레퍼토리를 보유하고 있는 세계적인 메이저 클래식 음반사 입니다. 뮤직 라이브러리는 Naxos, Marco Polo, Da Capo의 전 목록 뿐 아니라 재즈, 세계 음악 그리고 클래식 역사에 길이 남는 히스토리컬 음악 등을 Harmonies와 Analekta 그리고 BIS, ARC, FirstEdition, CBC와 같은 독립 레이블들의 음반 추가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전 세계의 앞선 독립 레이블들을 영입해 갈 예정입니다.

낙소스는 모든 메이저와 독립 레이블 가운데 유일하게 있습니다. 또한 낙소스는 McGraw-Hill, WW Norton 음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낙소스는 최상의 연주와 녹음 그리고 저렴한 가격으로 대표되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낙소스 뮤직 라이브러리를 이용하면 CD 손상과 분실에 대한 위험이 없습

니다. 복사본을 만들어 둘 필요도 없습니다.

뮤직 라이브러리는 기본 레퍼토리 뿐만 아니라, 다른 곳

생들과 교수님들은 보다 광범위한 영역의 음악 수업을 경험 할 수 있습니다.

낙소스 뮤직 라이브러리 외에, 낙소스 스포큰 워드 라이브러리(오디오 북)에서는 영어 학습과 교양 학습에 도움이 되는 고전문학, 음악전기, 철학 등 600 개 이상의 작품들을 청취, 낭독이 가능합니다.

100,000곡 이상 7,000여 장의 CD분량, 2500명 이상의 되는 방대한 음원들을 씨디 10장 정도의 가격으로 저렴하고 용이하게 접하실 수 있습니다.

교육 콘텐츠

> 위대한 작곡가들의 삶과 작품

> 설명과 함께하는 오페라
 > 오케스트라의 구성 악기들
 > 클래식 음악사

> 오페라 시놉시스
 > 오페라 대본

장르

> 재즈/포크/블루스 레전드
 > 노스텔지어 / 뉴에이지
 > 월드뮤직

이 모든 음악들을 64Kbps와 128Kbps로 스트리밍 서비스하며, 가격은 아래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기관에서는 이메일 또는 한국지사로 이용신청을 할 수 있으며, 개인 사용자는 낙소스 뮤직라이브러리 홈페이지 www.NaxosMusicLibrary.com에서 신청하실 수 있으며, 무료 이용서비스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 1년 구독 - 180,000원
 1개월 구독 - 18,000원

더 자세한 사항이나, 의문 사항에 대한 설명을 원하시면 낙소스 코리아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naxoskorea@naxos.com
 (02)717-1070



CLASSICAL - JAZZ - WORLD MUSIC
100,000 곡 이상의 유명 재즈, 클래식을 인터넷을 통하여 쉽고 간단히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낙소스 뮤직라이브러리와 함께 클래식 뮤직 매니아가 됩시다!!!!



표지사진 : 예뇌 안도

월간 <아울로스뉴스> 2005년 7월호
 통권 제 3호 발행 : 2005년 7월 25일
 발행인 : 임용득
 인쇄 : 투데이아트

발행처 : 주식회사 아울로스뮤직
 주소 : 130-110 서울시 동대문구 신설동 98-38번지 삼흥빌딩 2층
 전화 : 02-922-0100, 팩스 : 02-922-2522
 홈페이지 : www.aulosmusic.co.kr
 e-mail : aulos@aulosmusic.co.kr
 원고 및 광고문의 : 02-922-0100(대)

*본지에 실린 글과 사진, 그림은 본사의 허락없이 사용할 수 없습니다.